

21世紀 中·韓 協力 展望과 課題⁽¹⁾

— 中·韓 經濟協力을 中心으로 —

張 東 明

1992년 8월 중·한 수교 이후 양국관계는 실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다. 10년 이면 강산이 변한다고들 하지만 국가대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특히 역사가 기록되기 전부터 영향이 오고 갔을 중국과 한국의 경우에서 이는 실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두 나라의 관계는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 역사상 견주어 볼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003년 현재 중국은 한국의 제3위 무역국이자 최대 규모의 해외투자 대상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위 무역국이다. 이것만으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 나라 간의 협력관계가 각각의 국가경제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보기에는 그리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게다가 2003년에는 급기야 중국의 1인당 GNP가 1,000달러 선을 넘어섰는데 이야말로 중국경제 역사상 가장 큰 획을 그은 시점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들을 배경으로, 중·한 양국 경제무역관계를 재조명하고, 21세기를 통틀어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양국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중국의 시각에서 분석한 논문이다.

1. 머리말

2001년 12월에 중국이 공식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으로써 바야흐로 중국 경제는 세계경제 속에 융화되어 그들과의 협력과 경쟁체제가 더욱 긴밀해졌고, 또한 세계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02년에는 국내총생산이 10조 위안(元)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2003년에는 11조 6,694억 위안에 달해 전년대비 9.1%나 증가했으며, 이는 1997년 이후 최고성장률로 기록되었다. 국제무역수지 상황 역시 호전되어 2003년에는 대외무역 흑자가 255억 달러에 달했다. 실질적으로 투입된 외국인 직접투자도 535억 달러로 전년보다 1.4%나 성장했다[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2003)]. 개혁·개방 이후 중국무역의 발전과 변화 또한 이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附錄〉 참조). 2003년에 중국의 수출입총액은 8,512억 달러에 달해 전년대비 37.1%

(1) 이 논문은 遼寧大學校 亞洲研究센터 研究基金으로 支援을 받아 이루어진 研究《韓半島南北政治經濟關係에 대한 分析》중의 一部分임.

가 증가했는데 그 중 수출총액이 4,384억 달러로 34.6%, 수입총액이 4,128억 달러로 39.9%나 증가하였으며 외화보유액은 4,033억 달러로 기록됐다. 특히 2003년의 중국의 1인당 GNP는 사상 처음으로 1,000달러 선을 넘어 1,090달러나 되었다[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2003)]. 이는 중국경제연보에 다른 어느 해보다도 많은 공간을 할애하여 출판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대외무역은 각국이 생산한 제품을 해외 각지로 유통시키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재생산 공정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특히 전세계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해주고, 나아가서 한 나라의 경제와 세계경제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한다는 점에 그 의의를 들 수 있다. 혹자는 중·한 양국이 '地理的 인접성, 歷史的 근접성, 文化的 근접성, 感情的 근접성'이라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 오랜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밀접하게 경제무역과 문화교류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²⁾ 비록 냉전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꽤나 오랜 기간 동안 교류가 단절되었지만 1970년대부터 아시아 및 세계정세가 화해의 무드로 전환되고 중국이 對外開放政策을 실시함에 따라 양국 관계는 점차적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중·한 양국은 1982년부터 민간주도형 간접무역이 시작됐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 직후부터는 점진적으로 직접무역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1991년에는 '중국국제상회'와 한국의 '무역투자진흥공사'가 각각 서울과 북경에 지사를 파견하였다. 1992년 8월 24일 양국은 공식적으로 외교를 수립하였고 이때부터 양국의 무역관계는 장기적인 발전 국면을 맞아 전면적인 경제교류와 협작을 진행하였다.

국교수립 이후 양국의 무역규모는 매년 20% 이상의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성장 속도는 중국의 무역발전역사상 한국외의 여타국가와는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중국해관통계에 의하면 1992에는 50억 달러였던 중·한 무역액이 2000년에는 345억 달러로 8년 사이에 거의 7배나 증가했으며 이는 연평균 38%의 성장을 한 셈이다. 이 가운데 중국의 수출액은 112억 달러, 수입액은 233억 달러다[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1999~2000)].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공보에 의하면 2003년 중·한 양국의 무역 규모는 이미 632억 달러에 달해 수교 당시보다 12배나 성장했으며, 그 중에 수출과 수입이 각각 201억 달러와 431억 달러로 달해 전년대비 각 29.4%와 51%의 성장을 했다[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2003)]. 중국의 통계에 의하면 수교 이후부터 2002년 6월 말까지 허가된 한국의 對中投資는 19,956건이고 계약금액은 250.92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 중 실

(2) 馮玉忠(1998, p. 1)을 참고하기 바란다.

제로 투입된 자본은 136.03억 달러였다. 2003년 상반기의 한국기업 對中投資는 1,025건, 9.63억 달러로 각각 전년대비 47%, 136%의 증가율을 보였다.⁽³⁾ 요컨대 양국은 이미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주요한 무역상대국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제3대 무역국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⁴⁾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02년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제1위 해외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중·한 양국은 경제무역의 영역 안에서 우호적인 협력관계 및 상호보완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제무역이나 산업구조조정 그리고 경제구조조정 측면에서 그 전망이 매우 밝다. 비록 어떤 면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기는 하나 총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향후 양국의 경제관계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본 논문은 중·한 무역관계의 현황분석을 토대로 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를 고찰하고, 경제 협작의 특징과 규모를 도출하여, 앞으로의 중·한 교류협작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제의로 끝을 맺도록 하겠다.

2. 中·韓 貿易 發展過程 및 現況

2.1. 中·韓 貿易 發展過程

엄밀히 말하면, 중·한 무역관계는 1992년 공식적인 수교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주의할 점은 양국의 경제무역관계는 정식으로 수교를 맺기 이전 이미 민간적인 차원에서 15년 동안 진행되어 왔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거시적으로 볼 때 두 나라 간의 무역관계는 수교를 그 기점으로 하여 民間主導型和 政府主導型的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또 이 두 시기를 각각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7년의 아시아금융위기를 경계로 그을 수가 있는데, 따라서 중·한 경제발전 과정은 두 시기의 네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하겠다. 그리고 현재의 형세는 중국이 世界貿易機構(WTO)의 구성원이 됨에 따라 중·한 무역이 점진적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세부적으로 봤을 때 다섯 번째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2.1.1. 中·韓 修交 以前의 民間主導時期

수교 이전의 중·한 양국의 경제무역은 대부분 민간의 주도하에 추진되었다. 이 기간

(3) <http://china.kofa.org>.

(4) 2003년 중국의 제1,2,3,4대 무역 대상국은 일본, 미국, EU 그리고 ASEAN이었다. 이들 지역과의 무역 총액은 각각 일본 1,336억 달러, 미국 1,264억 달러, EU 1,253억 달러, ASEAN 782억 달러인데, 단일국가로 봤을 때 한국이 제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은 또 1988년의 서울 올림픽을 기준으로 하여 試驗的인 단계와 實質的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제1단계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이전으로 민간경제교류의 시험적인 기간이다. 중국과 한국의 경제무역관계는 냉전체제 기간 동안 단절되어 있었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시험적인 민간접촉을 시도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들의 거의 대부분은 친지간의 방문 혹은 소규모의 교류가 다반사였다. 이때의 무역구조로 보자면, 間接貿易이 전체 무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었고 그나마 이런 간접무역이라고 해도 주로 홍콩과 일본, 싱가포르 등의 중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양국은 비록 민간인이라는 통로를 이용해 간접무역을 진행했지만 당시의 정치적인 형세와 제약으로 인해 양국의 무역량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둘째로, 제2단계는 1998년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민간경제교류가 급속히 확대되는 시기이다. 서울올림픽이 성공리에 막을 내림에 따라 한국경제에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발생했고 특히, 중국과 관련하여 살펴 볼 때에는 이는 양국의 경제교류에 불을 당겨준 도화선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기점으로 중국과 한국정부가 접촉을 시작했으며 두 나라 간의 무역관계는 전환점을 찍고 안정적인 성장을 해나갔다. 1990년대 이후에는 양국관계의 정상화 및 항공 및 은행업무의 점진적인 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間接貿易方式에서 直接貿易方式으로 전환되었고, 중계를 통해 홍콩 등을 경유하던 간접무역을 무역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자면, 1990년에 한국의 對中國 輸出에서 홍콩을 경유한 수출량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로, 1989년의 65%보다 하락하였고, 같은 기간에 홍콩을 경유한 중국의 對韓國 間接輸出의 비율은 53%에서 45%로 하락하였다. 그 후 1991년의 양국의 간접무역 비중은 24.56%로, 1992년에는 19.83%로 하락했다(劉金質 외 (1998, p. 145)).

2.1.2. 中·韓 修交 以後의 政府主導時期

1992년 8월 중국과 한국이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은 후 양국의 무역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그 규모면에 있어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 시기는 또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韓國 金融危機)를 경계로 하여 수교 이후의 고도성장기와 금융위기 후의 조정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제1단계는 1992년 수교 이후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전까지의 高度成長期이다. 이 시기에 양국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정상궤도에 올라섰다. 게다가 중·한 양국 간의 《무역협정》(1992年 3月), 《산업

《합작의향서》(1993年 9月), 《중과세 금지협정》(1994年 3月), 《항공협정》(1994年 7月) 등이 체결됨으로써 제도적인 환경이 구축되어 교역의 고도성장에 일조를 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1992년의 두 나라 간 무역총액은 63.79억 달러, 1993년에는 90.80억 달러, 1994년에는 116.66억 달러, 1995년에는 165.4억 달러 수준을 보여 각각 전년대비 44%, 42%, 28%와 42%나 성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1996년에 불어 닥친 세계무역의 불경기 상황 아래서도 무역총액은 199.93억 달러에 달해 오히려 전년대비 21%가 증가했다.⁽⁵⁾

다음으로, 제2단계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조정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한국 또한 심각한 금융난에 처함으로써 대외투자과 무역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서조차도 중·한 경제교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조정기간으로 진입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비록 고도성장 추이가 약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여전히 일정수준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중국해관통계에 의하면 비록 아시아 금융위기의 발생과 한국의 금융위기로 양국 간의 경제무역이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1998년의 212.64억 달러였던 중국과 한국의 무역액이 1999년에는 250.36억 달러에 달해 17.7%의 성장을 보였다.⁽⁶⁾ 한국해관통계에 의하면 2000년 양국의 무역액은 312.54억 달러로 전년대비 38.6%나 증가하였는데 그 중 한국의 수출이 184.55억 달러, 수입이 127.99억 달러로 각각 전년대비 34.9%와 44.3%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0년에는 양국의 무역액이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해⁽⁷⁾ 1992년 원년 무역액의 5배나 성장하게 되었으며 이는 사상 최고로 기록되었다. 또한 무역성장의 속도 역시 각국의 대외무역총액의 성장속도를 추월하고 있는 실정이다(〈表 1〉 참조).

2.2. 中 · 韓 貿易의 相互補完性

2.2.1. 資源의 相互補完

어떤 국가든 자국의 꾸준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외부세계와의 폭넓은 연계가 필수적이다. 하물며 지리상으로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더욱더 밀접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현실적으로도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에 매우 커다란 상호보완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국토가 좁고 게다가 경지면적 또한 적어 농산물이 풍부한 편이 못 된다. 뿐만 아니라 여타 자원 역시 빈약하여 필요한 자원

(5) <http://china.kofa.org>.

(6) <http://china.kofa.org>.

(7) <http://www.chinaer.or.kr>.

〈表 1〉 中韓 兩國 貿易

(단위 : 억 달러)

연도	무역총액	수출	수입	평균무역액(±)
1980	0.41	0.15	0.26	-0.11
1981	0.75	0.05	0.70	-0.65
1982	0.98	0.06	0.91	-0.85
1983	0.74	0.05	0.69	-0.64
1984	2.22	0.17	2.05	-1.88
1985	5.19	0.40	4.78	-4.38
1986	7.44	1.23	6.20	-4.97
1987	10.77	2.11	8.66	-6.55
1988	17.59	3.72	13.87	-10.14
1989	21.42	4.38	17.05	-12.67
1990	28.53	5.85	22.68	-16.38
1991	44.43	10.03	34.41	-24.38
1992	63.79	26.54	37.25	-10.71
1993	90.80	51.51	39.29	12.22
1994	116.66	62.03	54.63	7.40
1995	165.40	91.40	74.00	17.40
1996	199.93	124.82	75.11	49.71
1997	240.45	91.16	149.29	-58.13
1998	212.64	62.19	149.95	-87.26

注 : 억 달러 이하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

資料 : 한국세관(1996), 한국통계청(1996, pp. 310-311), 中國對外經濟貿易部(1997~2000).

들을 대부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한국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원료와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기지를 확보하는 것이며, 또한 가까운 곳에서 이것들을 얻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란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경제발전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될 수 있으면 가까운 곳에서 얻는다는 것은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풍부한 자연자원과 값싼 인적 자원을 가진 중국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의심할 바 없이 가장 경제적인 무역의 동반자인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중·한 양국 간의 무역발전의 물질적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은 중국과 비교해 볼 때 1인당 소비수준은 높지만 인구가 적고 시장이 협소하다. 그리고 수출은 주로 미국, 일본 등 몇 개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의 지

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 비록 1인당 소비수준은 낮을지라도 인구가 많고, 이에 따른 무궁무진한 소비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한국의 여러 상품들, 예컨대 철강제품, 가전제품, 섬유류, 전자상품 및 자동차 등은 모두 중국에서 그 방대한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하나 더 주목할 점은 중국의 풍부한 勞動力이다. 한국은 현재 중국보다 높은 공업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인건비는 높은 반면 노동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의 경우는 遊休 勞動力이 한국보다는 많은 편이다. 이것만 보아도 차후 이 부문에서의 협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라고 하겠다.

2.2.2. 産業構造의 相互補完

1997년 金融危機 이후 한국은 점진적으로 構造調整과 技術高度化를 추진해왔다. 처음에는 주로 노동집약적 제조업 제품을 수출했었지만 점차로 노동력이 평가절상되고 경쟁자들이 증가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점점 더 약화되었다. 또한 1980년대 초의 한국의 重化學工業優先政策이 최근에 와서는 전자공업,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산업으로 확대이전되었으며, 이는 勞動集約的 製造業의 海外移轉을 촉진시켰다. 반면 중국은 저렴하고 질 좋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 한국산업의 해외이전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중국의 입장에서 분석해 보자면, 노동집약형 공업은 주로 중국의 수출을 주도하는 산업이어서 한국의 이러한 이전은 중국에 자본, 기술 및 선진화된 관리능력을 이전해 주어 중국 상품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다.

2.2.3. 技術의 相互補完

한국은 현재 신흥공업국가로서 그 공업화 정도가 중국보다 높으며 비교적 탄탄한 기초를 바탕으로 공업부문에서는 견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몇몇 공업, 예컨대,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전자 등의 분야에서는 이미 국제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들 업종이 아직 한국에 미치지 못하여 협력체제가 구축된다면 중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중국은 기초과학이 우세하여 몇몇 첨단과학, 예컨대 항공운수, 마이크로전자, 생물공학, 신소재 등의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으로도 선진수준에 다다라 있고 한국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써 양국의 협력체제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며 'Win-win'의 형상을 그려낼 것임이 확연하게 도출된다.

2.3. 中 · 韓 交易商品構造의 比較

어떤 상품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증감 변화는 주로 쌍방의 경제발전 수준과 경제발전 전략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의 交易商品은 構成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수출입 품목이 무엇이냐가 각국의 기술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냐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중·한 상품교역에서는 일방적으로 수출만 하는 상품이 존재하고 있다. 즉, 농산물과 광물은 줄곧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상품이다. 비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산물과 광물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전자제품, 자동차 및 합성수지, 플라스틱, 피혁 등의 상품은 중국으로 유입되는 주요 품목이며, 한국의 對中國 일방향 수출 품목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對韓國 일방향 수출품이 한국의 중국에 대한 그것보다 많은 상황이다.

많은 상품들이 서로 수출되고 있는데 쌍방향으로 이동하는 상품들은 중·한 경제발전의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表 2>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對韓國 輸出은 농산물, 방직물 등 勞動集約的 상품이 주종을 이루고, 간단한 기술을 구비한 資本集約的 상품들, 예컨대 컨테이너 등과 같은 상품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對中國 輸出은 플라스틱, 철강, 가공유, 종이 등 資本集約的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고 동시에 전기제품, 집적회로, 제어판 등 技術集約的 상품도 일정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후자의 비중이 점차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여기서는 중·한 양국의 무역 중 한국은 자본집약형, 기술집약적 상품의 수출에서 중국에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의 對한국 수출의 경우 자본과 기술집약적 상품의 비중이 증가하고는 있지

<表 2> 1998年 中韓 兩國의 貿易商品 構造 (단위: 억 달러)

중국의 對한 수출 10대 품목			한국의 對중 수출 10대 품목		
상품종류	금액	비중	상품종류	금액	비중
방직물	7.40	11.80	플라스틱	25.36	16.91
의류	5.17	8.25	방직물	21.41	14.28
식량	3.25	5.18	철강	12.76	8.51
컨테이너	3.00	4.79	가공유(成品油)	9.00	6.00
수산물	1.70	2.71	종이	6.62	4.41
가공유(成品油)	0.96	1.53	집적회로	3.56	2.37
피혁제품	0.91	1.46	피혁제품	1.15	0.77
면직물	0.84	1.34	알루미늄	1.11	0.74
견직물	0.79	1.26	강철	1.03	0.69
플라스틱	0.58	0.93	금속선반	1.00	0.67

資料: 中國對外經濟貿易部(1999).

만 여전히 전통적 상품, 1차 상품, 노동집약적 상품이 주종을 이룸을 알 수 있다. 기술 수준 차이에서 기인한 이러한 상품구조는 두 나라 간의 貿易不均衡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 한국의 경제무역 상품의 구조적 차이는 주로 양국의 工業化 程度의 차이와 經濟發展戰略의 차이에 관련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구조에 최근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다. 최근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對중국 수출에서는 자본 기술 집약형 상품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고 중국의 경우는 상승하고 있다. 둘째로 한국의 對중국 수출 중 피혁제품과 운송기계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對중국 자동차 수출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 자동차 공업의 빠른 발전으로 가격과 질적 수준면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자동차 부문에서 중국과의 협력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셋째, 중국으로 수출되는 방직물의 비중이 다소 하락하였는데, 이는 한국에서 산업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방직물의 국제경쟁력이 점차 쇠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 중 전자부품, 의류, 양말 등 생활용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중국의 전자공업이 빠르게 발전하여 일정한 수출능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증명하며, 또한 중국 수출상품의 구조가 전통적인 양상에서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4. 中·韓 經濟貿易 關係上의 主要 問題點

중·한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발전됨에 따라 경제무역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들도 내포되어 있다.

첫째, 중·한 두 나라 간의 무역에서 中國측의 貿易赤字를 꼽을 수 있다. 1992년 수교 이전에는 한국이 적잖은 무역적자를 냈었다. 1980년~1992년 사이 13년 동안 한국측의 무역적자 총액은 94.76억 달러였으며, 1991년에는 24.38억 달러로 최고에 달했다. 반면 이 기간 중 중국의 무역적자액이 가장 높았던 때는 2.1억 달러에 불과하였다[劉金質 외 (1998, pp. 147-148)]. 이는 주로 수교 이전에는 양국의 무역이 그리 활발하지 않았고 중국 정부가 긴축정책 및 수입억제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수교 이후 무역환경 및 조건의 개선으로 한국의 對중 수출은 매년 급증하여 중국의 무역적자가 갈수록 늘어났다. 1992년 수교 당시에는 2.18억 달러였던 것이 1993년에는 25억 달러, 1994년 29.2억 달러, 1995년 36억 달러, 1996년 49.7억 달러를 거쳐 1997년에 이르러서는 58.1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었다. 1997년의 무역적자액은 같은 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상품 총액의 38.9%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한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함으로써 중국의 對한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1998년의 수출총액은 62.7억 달러

로 1997년에 비해 31.3% 하락하였다. 1998년 한 해 동안 중국의 무역적자는 87.2억 달러에 달했으며, 1999년 상반기 들어 중·한 무역이 점차 회복되는 상황하에서도 중국의 무역적자는 여전히 확대되는 추이를 보여 액수로는 44.6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0년 중국의 對韓國 貿易赤字는 112.9억 달러, 2002년에는 120.77억 달러에 이르렀고,⁽⁸⁾ 2003년에는 23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2003)〕.

둘째, 무역적자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여러 가지 關稅 및 非關稅障壁이다. 만약 이러한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양국 무역의 건전한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중·한 양국은 공동의 노력으로 무역 불균형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으로의 자본·기술 집약형 상품의 수출을 꾸준히 늘여나가는 것이 무역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고, 한국 역시 효과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중국의 무역적자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사항도 지적하고자 한다. 즉 현재 중국에 투자한 많은 한국기업들이 한국으로부터 산업에 필요한 부문 및 원부자재를 수입하고 있으며 또한 생산한 상당수 제품은 다시 해외로 수출함으로써 중국의 대외 무역흑자에도 많이 기여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경제 성장에 따라 중국내 한국기업들이 원부자재 및 부품 조달을 현지화로 추진함으로써 가까운 미래에는 무역적자문제가 완화될 것이다.

셋째, 양국 간의 貿易摩擦 問題이다. 1995년을 전후로 하여 한국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상품에 대해 관세를 조정하였고, 중국은 한국의 신문용지를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반덤핑 차원에서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으며, 또한 철강, 합성섬유상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아시다시피, 20세기 말에는 한국이 중국 마늘수입을 제한하여 중국 측이 한국으로부터의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일시 정지시켜 심각한 무역마찰을 보이기도 했다. 비록 이 무역마찰이 중국에는 해결되긴 했지만 양국 무역의 정상적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무역마찰의 주요인이기도 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은 양국간 무역관계 발전에 큰 장애요소로 볼 수 있다. 그 실질적인 원인은 중·한 양국간 상품경쟁력, 즉 공업제품과 농산품의 경쟁력에 귀결할 수 있다. 따라서 양국간 관세와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해 보다 더욱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다. 현재 세계범위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FTA協商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8) <http://china.kofa.org>.

중·한 양국이 무역을 발전시키고 이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實事求是, 互惠平等의 原則에 따라 무역협상 메커니즘을 새로이 마련하여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를 강화함으로써 맹목적인 경쟁과 마찰을 해소하여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국 무역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가 신뢰와 이해의 기초 위에서 대화를 나누고 우호적인 협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만이 글로벌 경제 시대에 서 양국의 이익은 실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불완전한 법제와 각종 복잡한 규칙과 제도, 그리고 관료주의 역시 양국 무역의 협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의할 점은 2001년 12월 중국이 WTO에 정식회원이 됨에 따라 중국의 무역투자 환경은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중·한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에 악영향을 미쳤던 이러한 문제들은 점차적으로 감소될 것이며, 중·한 경제무역은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다시 한 번 맞이하게 될 것이다.

3. 中·韓 貿易 發展에 대한 展望

1980년대 초부터 중·한 양국의 민간무역 왕래가 시작된 이후, 1992년에 이루어진 양국 국교정상화는 경제무역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중국의 WTO 가입으로 양국 무역관계는 조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3.1. 中·韓 貿易商品構造 變化推移

중·한 양국 무역제품의 구조는 예전에 비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현재 두 나라의 수출상품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의류 및 직물 등 섬유제품과 TV, 선풍기, 발전기 등 전자제품이 국제시장에서 경합관계에 있다.

국제시장에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제품으로는 변압기, 오디오, 무선접속기, 진공청소기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수산물과 면직물, 신발류, 완구, 가구 등의 경공업제품이 있다. 반면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제품으로는 반도체, 음극관 등의 전자제품과 전자부품, 핸드폰 등 전자통신제품이 있으며 그 외에 기계장비, 철강, 공업용 방직제품 등을 꼽을 수 있다.

중국 세관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00년 중국의 對한국 석탄 수출은 6.98억 달러인 2,290만 톤을 기록했는데 이는 동년 對한국 수출제품 중 단일품목으로는 최대로 기록되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품목이 옥수수인데 630만 톤이나 수출하였다. 이 외에 사무자동화설비 수출은 전년대비 35.2% 증가한 4.15억 달러, 자동데이터 처리설비는 72% 증가

한 4.06억 달러에 달했다. 반도체부품은 0.9% 증가한 3.51억 달러, 석유는 102.6% 증가한 3.10억 달러, 변압기는 77.8% 증가한 2.27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이 제품들이 중국의 對한국 수출에 있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품목들이다.⁽⁹⁾

같은 해 한국의 對중국 수출 주요품목 중 최대품목은 석유 및 정제유로 총 16.25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54.5%나 성장한 수치이다. 냉음극관 및 광전관 수출은 10.97억 달러, 환식 탄화수소는 6.70억 달러, 사무자동화설비는 4.63억 달러를 기록했다.⁽¹⁰⁾

위 통계들로 미루어 볼 때 중·한 무역상품은 그 구성면에 있어 점차 변화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對韓國 輸出은 단일품목 중 석탄과 옥수수가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과거 한국의 對中國 輸出에서 주를 이루던 운송기계(주로 자동차)는 더 이상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중국의 對한국 수출상품 중에서 반도체, 사무자동화설비, 기능성부품, 철강제품 등 자본·기술 집약형 제품 비중이 계속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중국의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하이테크 제품 수출이 계속 증대하여 얼마 후에는 국제 시장에서 한국의 동종제품과 경쟁관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3.2. 中·韓 經濟貿易協力の 相互補完性和 發展潛在力

3.2.1. 商品構造

1995년 이후 발표된 통계를 살펴보면 중·한 양국의 輸出商品 構造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중국의 對한국 수출상품은 여러 해 동안 주로 방직원료와 제품, 원유 및 정제유, 옥수수, 석탄 등 원재료가 주를 이루어왔고, 나머지는 화학원료, 철강, 피혁제품, 신발류, 사료와 전자제품 등이 있었으나 근래에 들어와서 전자부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의 對한국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여전히 방직물이 최대 단일수출품목이긴 하지만 전자제품이 2위로 도약하였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둘째, 한국의 수출제품 중에는 전자제품, 기계설비 및 정밀기계, 자동차, 금속제품 및 철강, 선박, 화학제품 등 중화학공업제품이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 제품들의 수출비중은 중국의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중화학공업제품 수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어 두 나라 간 경쟁관계가 우려된다고 할 수 있지만, 수출상품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양국의 제품들은 相互補完的인 관계에

(9) <http://www.chinaer.or.kr>.

(10) <http://www.chinaer.or.kr>.

있는 것이어서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은 양국은 서로에게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2.2. 經濟貿易 協力分野

첫째, 2000년 9월 중국과 한국은 세계 최초로 무역촉진기구간 비즈니스협약에 대한 합의의 결실로 중국 '국제무역촉진회' 하부에 '전문대외무역문화망'을 개설하였다. 이 웹사이트는 '중국수출상품망'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21세기 실크로드망'이 조인해 설립한 것으로 국제무역 e-비즈니스 영역에서 폭넓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양국 수출기업의 국제시장 개척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 기구를 통한 앞으로의 중·한 경제무역은 그 협력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고 내용면에서도 한층 더 진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양국의 환경보호, 하이테크, 석유화학, 철강, 석탄 등 여러 분야에서 고른 발전을 하도록 협의 폭은 점점 더 확대되리라 보여진다.

둘째, 중국기업의 對한 투자도 괄목상대하였다. 현재 금융, 항공, 해운, 무역 등 여러 분야의 기업들이 한국에 지사나 분점을 설립해 무역협약과 교류촉진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 일례로 '中遠한국공사'는 한국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점이 인정되어 2002년 초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의 친필서한을 받기도 했다. 2002년 5월에는 '중·한 투자협약위원회'도 설립되어 양국의 투자촉진방안을 협상하여 세부조항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이며, 2003년 1월에는 '북경 동방과기주식회사'가 한국의 하이닉스에 3.8억 달러를 투자해 'BOE HYNIX 공사'를 세우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양국 간에는 산업협력, 자금협력, 연수생협력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4. 結 論

중·한 무역관계에는 비록 여러 문제가 내재되어 있긴 하지만 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양국은 모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부분 자원집약형 혹은 노동집약형이었던 중국의 對한국 수출제품도 국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對한국 수출제품 구조는 비록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노동집약형 산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效果的인 經濟構造의 再編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첫째, 중국은 우선 무역범위를 넓혀 輸出商品의 多樣化를 실현해야 한다. 중국은 근자에 들어서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고도의 기술과 부가가치를 지닌 제품들이 국제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다. 따라서 이 제품들의 한국 수출을 늘려야만 할 것이다. 들

제, 輸出商品의 品質提高를 꾀해야 한다. 품질로 승부를 하여야만 국제시장의 변화에 대한 응수가 가능해지며 또한 외환창출효과도 높아지게 된다. 이에 보조를 맞추어 한국은 중국의 공업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 흐름을 뒷받침으로 삼아 점점 더 많은 원재료, 석유화학제품, 기계설비 등을 중국에 수출해야만 한다.

중·한 경제무역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양국 교역에는 어느 정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어디까지나 양국 관계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사구시, 호혜평등이라는 원칙하에 그 해결 방법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또한 탐색이라는 방법을 통해 효과적인 무역협상 메커니즘에 도출하여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쌓아 모순 및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무역에 있어 현존하는 문제, 특히 貿易不均衡 問題는 양국의 부단한 노력을 거쳐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핵심은 양국이 문제를 심의함에 있어 거시적이고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해 보려는 자세로 임해야 하며 결국에는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Win-win 協商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한다. 또 무역에 있어 중국의 적자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장·단기적인 이익을 고려해 양국무역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요컨대, 지난 11년 동안 중·한 양국의 경제무역은 장족의 발전을 해왔고 우호적인 관계는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양국이 모두 경제무역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겠다는 의지가 있으며⁽¹¹⁾ 그 발전 잠재력과 여력이 아직도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제무역의 확대는 향후 정치, 문화 방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시장경제도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으며 투자환경 또한 개선되고 있다. 중·한 양국의 투자협력도 부단히 촉진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경제무역관계의 발전도 동반될 것이다. 세계 경제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면 의심의 여지도 없이 중국경제는 상당 기간 동안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WTO 가입은 양국의 경제, 무역협력을 위해 필요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이다. 중국은 이미 서부 대개발 전략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북경올림픽을 치를 예정이다. 이러한 제반 요건들은 앞으로 중·한 경제무역 및 산업기술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전대미문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임이 분명하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관련법규도 정비되면서 한층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이며 광범위한 대외개방

(11) 2003년 7월 한국의 노무현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주석과 앞으로 5년 내에 한중 무역액이 1,000억 달러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협의하였다.

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따라서 중·한 양국의 경제무역협력 전망이 매우 밝다는 것이 현재로서의 전망이고, 무엇을 얼마만큼 얻을 수 있을지는 서로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中國 遼寧大學校 韓國學科 副教授

110-036 中國 遼寧省 瀋陽市 皇姑區 崇山中路66号

전화: 86-24-2271-0213

팩스: 86-24-6220-2501

E-mail: zdm1999@hotmail.com

〈附錄〉 1978年 以後 輸出 · 入 成長率

(단위: %)

연도	수출입	수출	수입
1978	39.4	28.4	51.0
1979	42.0	40.2	43.9
1980	28.9	33.8	24.7
1981	16.4	20.4	12.6
1982	-5.5	1.4	-12.4
1983	4.8	-0.4	10.9
1984	22.8	17.6	28.1
1985	30.0	4.6	54.1
1986	6.1	13.1	1.5
1987	11.9	27.5	0.7
1988	24.4	20.5	27.9
1989	8.7	10.6	7.0
1990	3.4	18.2	-9.8
1991	17.6	15.8	19.6
1992	22.0	18.1	26.3
1993	18.2	8.0	29.0
1994	20.9	31.9	11.2
1995	18.7	23.0	14.2
1996	3.2	1.5	5.1
1997	12.2	21.0	2.5
1998	-0.4	0.5	-1.5
1999	11.3	6.1	18.2
2000	31.5	27.8	35.8
2001	7.5	6.8	8.2
2002	21.8	22.3	21.2
2003	37.1	34.6	39.9

注: 2000년 이후의 수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 공보에 의거함.
 資料: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1978~2003).

參考文獻

- 劉金質 외(1998): 『當代中韓關係』,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遼寧大學校 韓國研究中心(1994~2002): 『韓國研究論叢』, 各號, 瀋陽, 遼寧大學校出版社.
- 中國對外經濟貿易部(1997~2000): 『中國對外經濟貿易年鑒』, 北京, 中國對外經濟貿易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1992~2003): 『當代亞太』, 各號.
- 中華人民共和國統計局(1978~2003): 『中國統計年鑑』,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 _____ (2001~2003): “統計局公報,”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 _____ (2003): 『中華人民共和國統計局 2003年 國民經濟와 社會發展 統計公報』,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 馮玉忠 (1998): 『내가 본 한국』, 北京, 中國友誼出版社.
- 한국세관(1996): 『한국세관통계』, 서울, 한국세관.
- 한국통계청(1996): 『한국통계연감』, 서울, 한국통계청.